

면세...땅 제공...허가 단축... 전국은 지금 기업유치 전쟁

투자유치 열성 광주·전남 아직 멀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민선 이후 투자유치 성공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경남도 등 타 지역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대책이 뒤늦게 투자 유치에 나선 전남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기업의 투자유치 성패에는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친 기업적 이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권만을 의식한 지나친 분쟁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경남도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기업 유치와 관련, 토지 매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업유치 경쟁이 일천한 광주·전남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후유 축적은 물론 장기적 이익을 위해 국내외 자본과 기업 끌어들이기에 적극 협조하는 주민들의 세리머니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 전체는 물론

일선 지자체들이 민선자치 출범 초기부터 국내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 기업여건을 크게 개선해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공장부지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현금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외국기업에게 투자금 20% 현금 지원이라는 파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의 경우 최근 인구수가 급증,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권인 진주, 사천지역도 기업유치로 인구가 늘고 있다.

경남도는 수도권 업체가 해당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폭도 타 지역보다 커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동군은 취득세·등록세면제는 물론, 지자체가 나서 사업 부지매입과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윈윈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거제시는 기업 투자시 범 시민 환영회는 물론, 해당 기업 담당계를 신설할 정도다.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투자유치에 나선 경남도의 실적은 눈부시다. 민선 초기인 지난 1998년 8월 투자유치과를 신설한 경남도는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465명이 감원되는 와중에도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1과 4개팀 17명을 증원하고 이듬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경남도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기업 5천698개사로부터 시·군의 유치액 5조 699억원을 포함해 모두 13조 6천27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만6천74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반면 지난 2002년에야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뛰어든 전남도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1천489개 국내의 기업으로부터 6조 5천553원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실력 광주’ 옛말인가?

올 서울대 합격 129명...작년보다 38명 줄어

10명이상 합격 고교 없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천364명의 고교별 합격자 분석 결과, 광주지역 61개 고교 중 40개 고교에서 총 129명(최초합격자 기준)의 합격자를 배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67명에 비해 무려 38명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가 전국적으로 62개에 달했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 제출한 ‘서울대 2006 학년도 입학생 출신 지역, 고교별 합격자 현황’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여 고교 중 1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815개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61개 고교 중 40개 고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21개 고교는 단 한 명도 서울대에 합격시키지 못했다.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는 전국적으로 62개였다. 2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도 12곳이 됐다.

서울예고가 88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대원외고 65명, 명덕외고 43명, 서울과학고 37명, 선화예술고 33명 등이었다.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의 합격

광주지역 고교 2006년 서울대 합격자 수 (최초합격자 기준)

합격자 수	고등학교 (가나다순)
9	광주인성
8	금중
7	광주과학, 광주서석
6	고려, 송덕
5	광주대동, 광주동신, 동아여, 전남, 장광
4	문성, 실례시오, 전대사대부, 조대부
3	광덕, 광주동신여, 광주석산, 광주중앙여, 국제, 삼무, 용인
2	광주동성, 광주수피아여, 광주송일, 광주제일, 대령여, 윤남
1	광주경신여, 광주, 광주여, 광주예술, 광주진흥, 보문, 서강, 송월여, 송원, 송원여, 전남여, 조대여

생 비중이 지난 2004년 14.1%, 2005년 15.2%, 2006년 17.1%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고교 가운데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광주인성고가 9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 2004년에는 문성고 12명, 송덕고 11명 등 2개 고교가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했고, 2005년에는 송덕고 15명, 고려고 13명, 대광외고 12명 등 3개 고교에서 10명 이상을 합격시켰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맑은 하늘 구름 동실

백로(8일)가 가까워지면서 가을 하늘도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르러졌다. 6일 오후 무안군 무안을 풍동리 들녘에서 한 부부가 무르익어가는 조 이삭을 보살피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9월 1일~30일, 광주 지하철 강남로5구역
광주 미술관, ☎ 062-226-0541

전효숙 청문회 중단 파행

한나라 “민간인 신분 자격 없어”...여야 오늘 속개 합의

6일 개최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절차상 적법성 논란으로 중단되는 파행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정회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전 후보자는 현재소장으로 지명된 이후 사표를 내 수리가 됐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현재소장 후보자라고 하는 지위는 당연히 상실된다”며 “헌법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가 현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현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운근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논리에 의해 이중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접촉을 갖고 7일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06 세계 기업환경 순위

국가별 순위	한국 주요분야 순위
1 싱가포르	2005 2006년
2 뉴질랜드	남세 90 48위
3 미국	계약 안전 18 17위
4 캐나다	폐기물 12 11위
5 중국, 홍콩	고용 106 110위
6 영국	인력기 체력 26 28위
7 덴마크	소유권등기 65 67위
8 호주	은행이자 19 21위
9 노르웨이	투자자 보호 58 60위
10 아일랜드	국회유역 26 28위
11 일본	창업 105 116위
12 한국	

연세대학교 자료/국제금융공사(IFI)

韓, 기업환경 세계 23위...창업은 116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23위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환경 순위는 116위로 지난해보다 11단계나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특히 창업 분야는 지난해

105위에서 116위로 11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2단계, 소요 기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환경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는 2단계, 소요 기간은 3일, 비용은 1인당 GNI의 0.9%였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후원회비 납부 500원 즉시발급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상담전화 062-979-4114 ▶ 062-979-4200-9
새로운 달이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상담전화 062-3531 ▶ 062-360-3000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소프라노 조수미 광주공연
2006년 9월 24일(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 - 광주CBS
문의: 062-226-0541
www.kwangju.co.kr